

11th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성폭력 아픔, 프로이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2014 아동·여성 권익증진 공모사업**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2003년부터 시작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과 삶을 말하고, 이를 경청함으로써 지지와 공감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survivor)'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라는 말에 갇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며 삶을 일구어나가는 적극적인 주체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생존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언젠가는 성폭력 경험 또한 일상의 많은 경험 중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 문을 연 이후로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실태를 알리고 성폭력예방 및 대응활동, 성차별적 성문화 바꾸기 운동 등을 통해 여성의 인권회복,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성폭력생존자, 드로잉아웃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친밀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폭력을 인정받으려면
생존자가 피해에 대한 증명을 해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생존자들에게도,
성폭력은 때로 모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듣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거부당한 경험들 속에서
말로 다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내보고자 했습니다.
왜 '좀더' 반항하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반항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은
고스란히 몸에 남아 아프곤 했습니다.
생존자 자신에게도 너무 낯선 몸의 경험들을
토해내 보고자 했습니다.

언어가 되지 못하는 몸의 기억들을
만지고 느껴보고 칠해 보고 찢고 붙여 보면서,
그러 본 장면들은
두렵고 아픈 모습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성폭력생존자, 드로잉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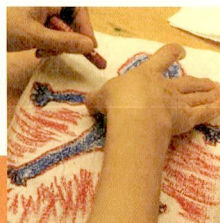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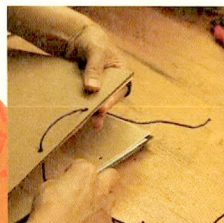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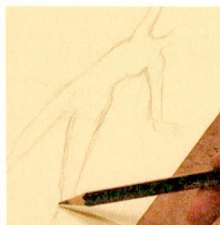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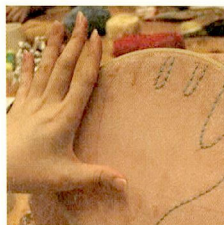
지금 자신의 몸을 그려본다.
경험이 있던 날 입었던 원피스를 누여 놓는다.
마치 허물처럼.

몸이 느낀 공포와 우울과 분노를 표현하고 싶다.
몸을 본 뜬 세 개의 인형을 바느질한다.

경험이 있던 집 앞에서 뒷모습이 나온 사진을 찍고 싶다.

모빌 형태로, 무너지는 가슴을 별처럼 많이 달아놓는다.
눈물일지도 모른다.

내 몸을 본 떠, 전신자화상을 그려본다.



성폭력생존자, 스피킹아웃

아직도, 성폭력생존자에게는
더 많은 말하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이에게 자신의 말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을 만한 몇몇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말해보기도 하고,
얼굴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하기를 펼쳐놓는 것까지,
성폭력생존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말하기의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이 열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하기의 자리가 생긴다면, 듣는 사람들 또한
조금 더 여러 번, 듣는 방법을 익히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통해
말하기 참여자들은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왔습니다.
듣기를 통해
듣기 참여자들은 통념에 둘러싸인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우리의 변화가능성을 꽃피워봅시다.

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스피킹아웃, 드로잉아웃'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드로잉 아웃, 시네코드

전시

2014. 10. 22 (수)~27 (월) 10:0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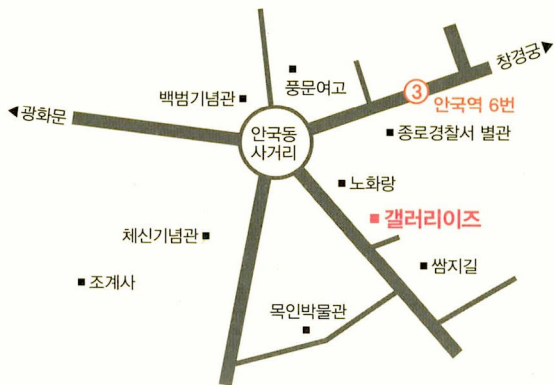
갤러리이즈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말하기

2014. 10. 23 (목) 19:30~21:30

시네코드선재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석 무료, 선착순 마감)



여성인권 한국성폭력상담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사무 02)338-2890~1 상담 02)338-5801~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블로그 <http://stoprape.or.kr/> 트위터 <http://twitter.com/stoprape/>

페이스북 <http://facebook.com/ksvrc/>